



# 외대학보

진리 평화 창조

1998년 3월 30일 (월) 제709호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조규실 편집인 김정희 주간 번역 편집장 김정희 인쇄인 출판주 외대학보 학생기자실 (서울) 02-4152, 4405 FAX 02-4183 (용인) 03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모현읍 홍성리 산 89

## 양 배움터 총학, 재단투쟁 가속화

### 서울, 재단 사무처 점거농성 용인, 성명서 발표

지난 28일(토) 서울 배움터 총학생회는 '외대학과 재단개혁을 위한 총학생회 재단 인서'에 대한 재단측의 구제적인 답변이 없자 재단사무처를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당초 총학생회는 지난주 월요일인 23일까지 재단 서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가 '구제하지 못하고 예전에 박승준과 학연이 있다'며 뒤로 물어버렸다. 당시 수준이었으며 구체적 답변이 없을 시 26일(목)에 재단사무실을 점거하겠다고 경고 했었다. 그러자 재단이 논의를 제외했고 재단사무처장은 조종학(신방교)교수와 부총학생회장 김성삼(사회·신발 4), 사무국장 강병석(동양·터키 4)군이 면담을 진행, 수령 가능성이 보이는 듯했다. 재단측은 재단이 시사회개혁방안을 비롯한 몇 가지 제언에

서 문제제기를 하며 모범인 사립학교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오전에 다시 얘기하기로 했으나 다음 날인 27일(금) 오후 2시에 재단사무처를 연락해 들어온 총학생회는 처음 농성에 들어갔다. 농성과 함께 진 행된 협상에서 별 거하지 않은지 짚어보았다. 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농성에 참가한 수십 명의 학생들은 '시간끌기 학생기자' 등에 구호 단 '각성하라' '외대발전 꿈취지'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낮의 협상 결렬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40여명의 학생기자들에 대해 진행된 철회농성은 3일안에 협상을 끌어내려는 학생회의 의도가 짚여진 행동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협상에서 서울, 용인 특화발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대체로 뜻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회는 또 내일 29일(일) '학생총궐기' 성격의 대규모 집회를 신청하고 있다. 한편, 학생회는 박승준에 대해서는 '재기 할 수 있는 틈'을 만들고 판단하고 있다. 부총학생회장은 "교내 모든 어른은 이미 박씨에게 모이고 있고 특히 교육부 정의방문의 위력은 있다"며 "관련해 본격적으로 대법원을 전개하는 것"이며 "다만 아직 박승준이 해임되지 않고 있는 것은 답답하다"고 선포했다. 지난 23일(월) 열린 전체교수회에서도 박씨진의 입장은 밝았으며 총회장에게 박씨진의 입장이 없는 것은 충동문화부 뿐이다. 이에 학생회는 관리실 충동문화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박승준과의 연관관계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이날 밤에는 박승준에게 대학을 찾았으나 무관한 담이 나오지 않고 있다. 실정이다.

지금까지 두드러지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던 용인배움터 총학생회도 지난 23일 확대 운동위원회를 통해 '제단분규 사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는 △ 현 사태의 조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가정 '외교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원의 각 대표기구를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 △ 현 시대의 정확한 사사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가 개입된 학교 경영권은 일방적 권력을 반대한다 등이 입장문에 정리되어 있다. 부총학생회장 임경민(경상·무역 4)군은 "당기간내에 외대발전증강기금을 결정할 외대구성원 전 체와 결정기구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몇몇 개인의 이해에 얹혀 경제방향이 수립돼 온 지금까지의 모임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10면  
박윤정 기자

### 지면 안내

용인 정기학생총회 개최	3면
한총련 혁신·재단투쟁 결의	
38% 학생들, 도서관에서 공부가 우선순위	6면
3%·무역 4)군은 '학원 3주제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외대구성원 전체 의사결정 기관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8면
사회단체 대표들과 한총련은 각자 기자회견을 열고 각계의 인기부 개혁과 혁신·국립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8면
재단개혁이 안되면 자곡동도 못갑니다. 왜? 그분이 그분인자지 몰라 아깝답니다.	8면

## 동구어대·동연 다음주 선거

### 한협, 허운숙·박일천조 당선

10대 언론인의회(한협) 경부의장 선거가 지난 26일 각 배움터 인접실에서 있었다. 이번 선거에는 정부의장 후보에 허운숙(동양·이암 4)·박일천(경상·무역 2)조가 단독후보로 출마해 총 재직인원 48명 중 3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炳내 2명, 무효 1명으로 당선됐다. 한편 오는 4월 2일(금) 용인배움터 이문관 로비에서는 7대 동구어대생

사업과 및 경산 인준△세미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인준△세미전 사업보고△총학생회 간부 및 위원회 인사 등의 회장 선거가 있다.

이번 선거에서 단독후보로 출마한 주경석(동구·체육 4)군은 △학회, 동아리, 소모임 강화△대학원 1기 한총련 건설과 학생운동의 혁신△단내분리 실현 등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 16대 동아리연합회(동연)회장선거는 4월 1일(수)로 연기됐다.

▶ 3면으로 이어짐

사회부 정기기자 이지연(서양·포어 2) 문화부 정기기자 김경신(자연·화학 2) 사회부 차장 박내현(서양·독어 3)

사회부 차장 박내현(서양·독어 3)

면 사회부 차장 한상준(서양·독어 3)

외대학보



"한마음 한뜻으로"

지난 21일(목) 용인배움터 노학극장에서는 비오는 가운데 정기학생총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재단투쟁·'한총련 혁신·재단'을 주제로 다수의 학생들이 참여해 나와 어울릴 수 있는 저마다 만들려 다른 어떤 행사보다 하나로 단결되는 자리되었다.

임금회 기자

## 신혼 단품에 묻힌 4·3의 냄새

▲ "그날 새벽 총소리가 요란하자 젊은이들은 환호하고 피실히 피난했습니다. 난 어머니와 어린아이까지 죽이겠느냐는 생각으로 집에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불을 붙이는 군인들도 텅 빈집이 아니었어요. 총알이 내 옆구리를 뚫었습니다. 세 살난 딸을 업은 채로 희 쓰러져 자자 아홉 살 난 아들이 '어머니'라며 내게 달려들었어요. 군인들은 아들을 향해 또 한발을 쏘았습니다. 그들이 풍통으로 맞았습니다. 등에 입힌 멍이란 멍팔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등에서 아기를 내려보니 윈쪽 무릎이 빙 뚫려 있었습니다. 내 옆구리를 관통한 총알이 몇의 위쪽 머리까지 부숴놓은 겁니다"

▲ 두 번째 생일날 불구자가 된 그 딸이 이제 쉰 살이 넘었다. 4·3 재주민총생이 일어난 지 50년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4·3에 대한 진실은 은폐·왜곡되고 있다. 그 회생들은 아직도 공신hood이거나 죄악활동가란 비판 아래에 묻혀 있다. 여전히 국사교과서에는 항쟁이 아닌 폭동으로, 조국의 독립과 통일이 아닌 국정 위기와 교란을 위한 브란으로 기록되어 있다.

▲ 제주도에는 신혼의 '단꿈' 아래 아직도 눈감지 못한 4·3의 냄새를 물고 있다. 이제는 밝혀져야 한다. 그동안 독재자들에 의해 진실이 가려져 왔다면 50년이 지난 이제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진실규명과 더불어 실질적인 복권도 이뤄져야 한다. 아직도 폭도의 맘에 빛지 못하고 언론재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곳이 제주도다. 유족에 대한 배상과 벌금은 모든 권리와 자유가 원상회복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것이 국민정부라고 자칭하는 김대중 정권이 할 일이다. 그ket걸은 4·3 특별법 제정일 것이다.

김정희

## 4월 2일 배가 출항합니다

이제 떠나야 할 때입니다.

바다의 거센 풍랑이 그치기만을 기다리다.

너무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IMF 경제위기, 국가부도상태, 고용불안, 한총련 탄압…

어느 것 하나 나쁜 것이 없습니다.

청년학생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4월 2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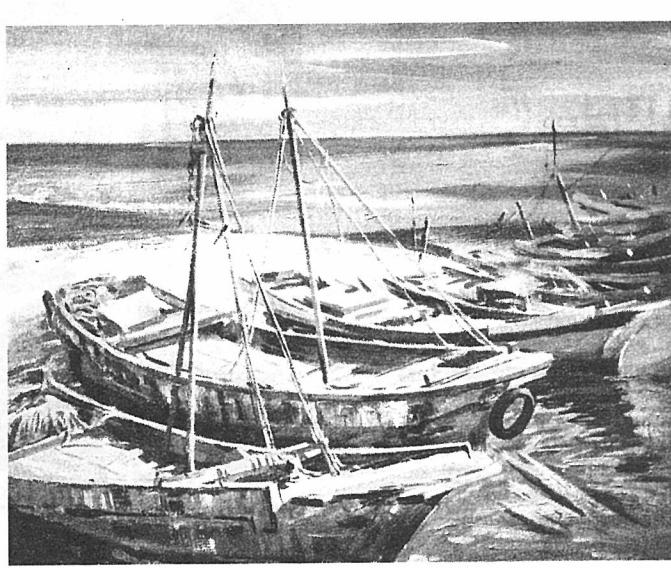
공정한 IMF 재협상과 정리해고 반대

김영삼 사법처리, 학생자치권 수호의 닷을 옮리고 나가야 합니다.

한총련 충돌기입니다.

민족자주인론

외대학보







## 업자의 삶

## “사회가 오라고만 하면 뭐든 할 수 있다”

감실 석촌호수.

불쌍한 날씨에 빗방울까지 떨어지는 무거운 오후, 벤치에 앉아 얘기할 나누고 있는 두 남자에게 다가가 어렵지 말을 꺼냈다.

“... 살피지만 두 분을 모델로 호수 사진을 좀 찍을 수 있을까요?”  
3대 한족... 보이는 한 남자가 기자를 물끄러미보며 대뜸 “혹시 고개숙인 아버지 같은 사진 찍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일하다가 쉬러 나온 사람인데요” 하며 자신의 의도를 전파해낸다.

당지 호수 사진을 찍는 것뿐이라며 극구 부인한 끝에 결과로 승낙을 들어냈다.

호수가 앉아있는 중년남자의 사진에서 곧 비로 ‘고개숙인 아버지’가 양상될 정도로 실업의 문제가 우리 기이에게 다른 것이라면 비난일까.

잠길 일대의 ‘고개숙인 아버지’를 찾아 해 맨자 반나절 실직자인 척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확인해보면 모두다 실직자가 아니었다.

정말 실직자는 아닌지 실직자임에도 부인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지만 ‘실직자 인터뷰’가 하늘에 빛나기리는 소문은 과연 사실이었다.

그러나 저녁 때쯤 드리여 자신이 실직자임을 밝힌 사람들을 만났다.

외쳤 보기에 사무직에 종사하는 유능한 직장인같아 보이기 때문에 양복 차림의 그 사람을 만난 곳은 전설로 남았지.

‘실업노동자 조직’에 일자리를 문의하려 온 이종백(가명)씨 또한 인터뷰를 끌려갔지만, 실업노동자 조직계에게는 실직자를 받아 본명과 사진을 신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10분동안의 짧막 인터뷰를 했을 수 있었다.

“언제 직장을 잊으셨나요?”

“그... 작년 9월 30일쯤이죠.”

그는 37세로 W건설회사의 기획관리부 대리로 일하다가 회사로부터 인해 97년 9월 30일 해고됐다. 회사는 96년 1월 18일에 부도가 났는데, 건설업과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다른 업종파는 달라 해고 및 달전보다 금고가 없고, 퇴직금도 받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동안 뭐때문에 자녀생성요?”  
“지하철로 한강 달을 들고 나와서 여기저기 많이 다녀왔죠. 직업소개소, 창업안내 내용, 직업장소소 같은데요.”

“일자리는 있던가요?”

“없죠. 6개월정도는 아니었지만 일자리 구해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이어서는 넣어봤자 99% 팔리고”

그는 노동부 직업소개소에도 가보았다고 한다.

“구직신청서를 주는데 그걸 쓰고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미상 기다리는게 아니라 14일에 한번씩 확인화면에 대한 증명을 받아야 된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업종을 선택하려 했는지 등을 말에 별이 나도록 뛰어나서 즐거움을 해도 일자리 구하는 사람을 꼬소스세요”

거기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그는 막 노동부에 허락하는 절박감에 세벽 인증장에 대고 기도했다.

“노기다로 밤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 거기는 경쟁률이 10대 1이 넘어요. 그것도 경쟁률이 사람들은나 끌려가기. 하루 평균 20명”

집안 분위기와 대해 묻자 그는 “뭐... 그렇죠. 예전에는 유치원이나 학원에 못가거나 친구들하고도 멀어지는 것 같고...”하며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다.

“지금 심상은 어때세요?”

“처리리 전화만 받는 일이라도 하고 싶어요.”

사회에서 오라고만 하면 뭐...”

처음에는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믿음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면 이종백씨는 지금 자신이 사회에서 놓겨났다는 생각을 풀쳐버릴 수가 없었고 한다.

이종백씨와 같이 정리해고로 인한 비자발적 전자실업자도 미터리 신규채용 억제로 인한 신규실업자 문제도 심각하다. 대학졸업생들의 취업률이 예년보다 15%가량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학교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인 것이다.

‘대출 실업자’... 그들을 만나보기 위해 우선 우리 학교 도서관에 가보았다.

6층 도서관 휴게실, 이제는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학생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혹시 출판생이신가요?” 심증평가를 아니라 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여기도 실업자가 없단 말인가. 1시간쯤 어울렸던 거였지만... 한 사람이 눈에 띈다. 담배연기로 내용을 헤아리고 흡연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갔다.

“출판생이세요?”  
“네, 그런겁니다.”

거리낌없는 대답에서 알 수 있듯 그는 인터뷰에 비교적 잘 응해주었다.

“요즘은... 뭐랄까. 술집에서 기본은 좋지 않죠. 대학졸업생이 다 찾건가 같구.”

“예, 술이 들어가야 얘기가 잘 나오는데... 지금은 좀 그러네요.”

집안 분위기에서 끌려가기 때문에 물어보는 대답에서도 알 수 있듯 그는 인터뷰에 비교적 잘 응해주었다.

“요즘은... 뭐랄까. 술집에서 기본은 좋지 않죠. 대학졸업생이 다 찾건가 같구.”

“예, 술이 들어가야 얘기가 잘 나오는데... 지금은 좀 그러네요.”

집안 분위기에서 물어보는 대답에서도 알 수 있듯 그는 인터뷰에 비교적 잘 응해주었다.

“요즘은... 뭐랄까. 술집에서 기본은 좋지 않죠. 대학졸업생이 다 찾건가 같구.”

그의 친구들은 대부분 취직을 했는데 자신



만 취직공부를 하고 있으니 만나기도 좀 걸끄다고 한다.

“요즘 취직못한 졸업생들이 도서관에 진짜 많이 앉아 취직공부하고 시험준비하는데 최소한 1년은 필요해요. 학교에서 출판생은 한 회기

밖에도 도서관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 걸 문제가

많은 것 같애요”라며 자리에서 일어나 열렬히 들어가는 그의 뒷 모습을 보면서 인터뷰를 무사히 끝냈다는 뿐만 아니라 그가 남마다 지니고 다닌 무거운 고민들에 생각이 미친다.

학술부

편집자

<글신는 순서>

- 1. IMF사태, 고용현실과 고용구조변화
- 2. 고용위기의 원인
- ①세계자본의 신자유주의
- 3. 고용위기의 원인 ②한국자본주의의 IMF
- 4. 고용위기의 원인
- 5. 대안- 신자본주의 일자리나누기
- 6. 대안- ②자립적 경제의 트대구축



실업노동자 조직 - 건설노련 정책국 이종현씨를 만나

## “실업자 조직화해야 사회위기 해소된다”

다.

실업노동자를 그대로 방치하면 집단사살, 이혼, 아동유기, 가정폭력 등 가정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용돈강도, 폭행, 강도 등 사회적 폭력으로 나타난다. 또한 실업자 자신의 경찰서를 압박과 심리파괴 등 인간성 파탄의 폭행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위기의 조짐을 해소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실업노동자를 조직화하고 그 조직을 통해 정당한 요구로 노동환경 정리하고 학교를 통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실업자조직 단체설립 대상이 없고, 노동법상 근로자로 규정되지 않으며 사회경제전반에

영향을 끼친다는 근거를 들면서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표포는데

실업노동자의 26%만이 정부의 고용보험혜택에 의한 구직급여를 3개월정도 받을 수 있다. 절반보단더 돈을 받는다는 것은 이 26%의 실업노동자들이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런 정부의 논리에는 모순이 있다.

또한 초기업단위 실업자조직을 허용하기로 한 노동법의 인용을 이해하지 않은 것으로 정부는 정리하고 있다.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악기능이 너무나 극심한데 반해 법상으로는 실업자조직을 단순으로 정부가 반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 사람의 반대할 수가 없는 학생 혹은 다른 사람의 일자리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실업문제를 단순으로 드러내면서 고용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많은 실업노동자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생각이다.

실업문제에 대한 비정직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현 경제판단 속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은 민중들이다. 우선 광범위한 민중연대에 의한 구직급여를 3개월정도 받을 수 있다. 절반보단더 돈을 받는다는 것은 이 26%

의 실업노동자들이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런 정부의 논리에는 모순이 있다.

또한 초기업단위 실업자조직을 허용하기로 한 노동법의 인용을 이해하지 않은 것으로 정부는 정리하고 있다.

또한 초기업단위 실업자조직을 허용하기로 한 노동법의 인용을 이해하지 않은 것으로 정부는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반대할 수가 없는 학생 혹은 다른 사람의 일자리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실업문제를 단순으로 드러내면서 고용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많은 실업노동자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생각이다.

임승희 기자

Prime 프라임사업주식회사



21세기 정보, 소평, 문화체험-테크노마트

## 오세요! 젊음의 대륙으로 - 오세요! 이벤트의 세계로 -

4월 4일 오전, 강변에 젊음을 위한 이벤트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영화시사회에서 세·비·키스터블, 마침루 콘서트,

테크노 음악회, 전시회, 도전경기의 힘으로 이어가자- 봄찬 낭만의 열기로 젊음을 사랑하는 테크노 마트의 이벤트 세계! 뜨거운 4월의 풍경으로 오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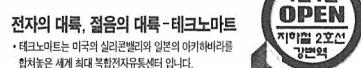
봄꽃 터지는 축제의 세계로 오세요.

이기는 세계최대 첨단복합유통단지, 테크노마트입니다.

4월 4일 OPEN

지하 2층 2호선

경인역



4월 4일 OPEN

지하 2층 2호선

경인역

4월 4일 OPEN

지하 2층 2호선











외채문제를 다시본다

# 이자에 이자... 밀빠진 독에 물붓기

## 금리... 5~6% 수준 인하, 외채... 장기로 전환 절실

한국의 실제 총 외채는 1,569억달러라고 기업이 외국 현지법 인을 통해 빌린 돈을 합하여 약 2,500억달러라고 한다. IMF 구제금융으로 나타난 한국의 외채는 세계 최대의 채권국으로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채를 1,569억달러로 계산하더라도 연방기준 환율을 222조4090억원의 외채를 가지고 있다. 이는 국민1인당 외채가 5백만원으로 4인가족 기준으로 약 20여만원에 이르고 있음을 시사한다. IMF와 협력한 금리대로 금리를 8%로 끌어올 경우 외채에는 1년동안 1백20억달러가 된다. 이것은 한국에서 예상하고 있는 98년 무역흑자예상액을 30억달러로 본다면, 외채에 대한 이자를 깊고도 90억달러가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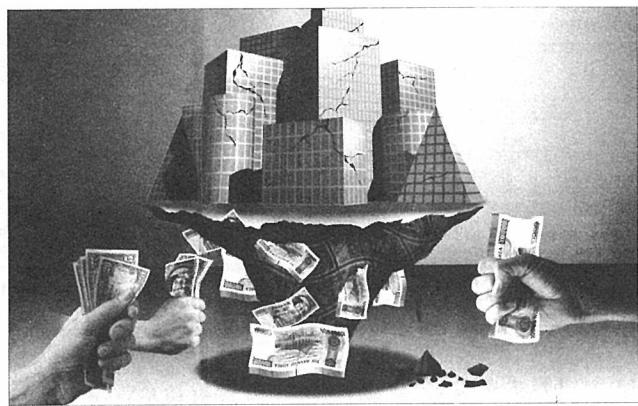
그런데 최근 외채증장 협상에 국제재판관들은 외채 연장의 조건으로 연 8~9%의 금리를 요구하고 있다. IMF는 일반적인 국제금리인 5%보다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전체가 생활상향상을 위하여 범위로 일해 수출을 해도 외채에 다시 외채를 빌려와 이자율을 높이는 악순환이 되고 외채는 늘어나면서 불어날 것이다. 외채의 증가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증가시켜 국내에서 생산된 부가 해외로 빠져나가 아무리 부리를 쳐줄해도 밀빠진 독에 물붓기 식이 되고 만다.

캐나다 오타와 대학교수이자 '민관의 세계화' 저자인 미셸 쇼스도프스키는 '주권국가가 이렇게 해서 국제 금융기관의 감독을 받는 상황에서 물려오는'의 이유에 대해 "해당국가가 재무국"이기 때문에라고 설명한다. 또한 "브레턴우즈 기관(IMF와 IBRD)들이 공공 단체 또는 민관 협력과의 이해에 맞추어 거시경제 정책을 '적절하게' 수정함과 차관협약에 단속사항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른바 '조건'을 체계화들에게 부여하기 때문이 더"라고 한다. 미셸 쇼스도프스키 교수에 의하면 IMF구제금융의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80년대초 이후 개도국들의 외채 부담은 계속 누적되었다. 사실 이같은 외채감소 계획은(구조조정 조건)으로 민관 협력과의 이해에 맞추어 제공되는 IMF와 세계은행의 정책담보기관과 함께 이루어져 개도국의 외채는 신속히 상환되지만 미상한 외채는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한다. 실제로 70년대 약 62억 달러에서 80년대에는 5억 증가한 4,810억달러이고 90년대에는 단기외채를 포함한 개도국의 총외채는 1996년 225억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70년대에 비해 32배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한국은 외국자본의 영입을 가속화시켜 한국경제의 시민으로 확장되어 갈 뿐만이 아니라 신속히 상환되지만 미상한 외채는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한다. 즉 외채를 깊어지면서 한국기업과 시장을 외국인에게 팔아넘기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IMF는 고금리를 유지해야 달려가 들어온다는 논리를 고금리를 강요하고 있다. 연 30%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법정 최고금리를 40%로 끌어온다. 물론 IMF 자체에서도 폐지도 강요하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금리가 8~10%로 치솟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 IMF의 요구로 외화이자제한이 철폐되자 외국인들은 국내 단기채권시장에 더러워지지 않는 매력을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 이자 30%일 경우 국제시장의 자금조달 코스트가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환리스크를 연3%로 설정해 볼 때 국내 재권투자를 통해 적어도 15%는 확실히 행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제 금리가 5~6%에 비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IMF와의 재협상을 통해 적어도 15%는 확실히 생길 수 있다면 계산이 나온다. 국제 금리가 5~6%인데도 불구하고 국제 투자자는 물어오면 50%나 80%의 이자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고금리를 30%로



IMF는 일반국인 국제금리인 5~6%보다 높은 연 8~9%의 금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1년간 외채이자만 120억 달러가 되며, 98년 무역흑자예상액을 30억달러로만 보아도 90억달러가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 돈을 빌려와 이를 갚아야 하는 혈성이 생길 것이다.

공체인데다 회임기인이 짧아 그만한 가치적 자금유인 효과가 크다.

또한 외국기본은 이은은출을 쉽게 하기 위해 IMF를 앞세워 이미 외국과 '고기법' 개정을 요구하는 상태이다. IMF는 달리가 안드는'은' 사용하는 달러의 자유로운 유동성을 막는 제도를 두어서는 곤란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단기성 투자기관(한국인)들의 한국내 진입에 글증권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다.

개다가 IMF가 요구하는 외환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무례한

적인 이윤송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관이 허락에 따른 환율스크립트를 연비 7% 정도이고 원화기준 1년기 예상금리를 5~6%로 하면 엄

## &lt;글심는 순서&gt;

- 학교법인의 지위와 역할
- 일그러진 동원제단의 역사
- 재단전횡, 어디서 오는가?
- 재단다운 재단으로 ①
- 재단다운 재단으로 ②
- 재단다운 재단으로 ③

재단 바꾸기, 외대살리기 - ④재단다운 재단으로 1 - 재단개혁과 민주적 의사수렴구조

# 이사진 개편 안되면 자곡동 못 간다

재단개혁 없는 투자불가능... 학내 구성원 동의로 이사회 구성돼야



본보는 지난 706호부터 3번에 걸쳐 우리나라 사립학교재단의 전횡실태를 고찰하면서 그 원인을 재단에 괴도한 권한을 부여한 사립학교법에서 찾았다.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폐한다'는 말처럼 재단이 법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받고 있고 험하고 있는 권력에 의해 사립학교는 썩어가고 있다. 국가로부터 학교에 대한 투자를 위임받은 공공성을 띠고 있는 재단이라면 가장 중심에 뛰어 하는 것은 역시 학교에 대한 투자이다. 그러나 재단은 학교에 대한 출출적인 투자계획을 짓고 학교에서는 발전계획을 회내 세력들의 협의하에 짜나가는 것과 진정 전횡을 막고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길이다.

이에 본보는 재단이사회의 개혁방향, 학내 민주적 의사수렴구조를 통한 학교발전의 의무인, 9년 제기했던 외대발전 법 외재인 추진부문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대한 학교의 독립은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된다. '재단으로부터 학교의 자유롭지 못하면 재단이자 보호리 투자 하나 세대로 못을 끊어야 한다'는 한 학생의 말은 파행적 인구조의 핵심을 지적하고 있다. 또, 족벌제체가 아니라 재단이 진짜 학교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되려면 재단 이사진의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 친인척이 아니라도 이사회 내 주요세력(동원제단)의 경우 대부분 이사장과 결탁하는 경우는 수없이 많고 굳이 결탁하지는 않더라도 학교의 정의와는 겹우는 경우가 많으면서 학내 구성원들의 합의 속에 이사진이 개편된다면 보다 완벽한 방법일 것이다.

우리학교와 경쟁으로 박승준이나 외교부에 결탁한 이사들은 물어놓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긴 하나 돌아온 이후에는 이사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학내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인물들이 이사진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단개혁의 방향은 확실한 재단의 역할과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첫째, 현재 파행적으로 굽러지고 있는 인구조를 신장하는 것이다. 현재 많은 수의 대학들이 재단과 학교의 요직을 족벌을 통해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양대학의 경우와 같이 이사진의 아들이 종종을 맡고 있는 경우, 재단에

가 학교행정의 손속화를 의미한다는 것이 결코 비난이 아니다. 재단이 가지 고 있는 인사권의 경우도 그것을 악용해 소지는 다분히 존재한다. 일례로 교수수제로 교수수간에 연구하는 풍토를 만드는 교수들은 풍토에 난 교수들을 송径이라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셋째, 재단의 본래 역할을 충족해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즉, 잡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의 부자부린 학교를 밟는 것, 토지 등 자산기지에 비해 수익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자산은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 예결산을 공개하는 것, 수시사업계획을 투명화하여 학교의 정입을 확신하는 것 등 투자에 대한 것이다.

이와 같은 개혁방향은 재단으로서는 상당히 수놓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학교발전을 위한 방안

들인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방안

들을 정리해 명확하게 하는 정관개정

작업을 학내 구성원들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것이다.

박윤정 기자

## 만나보기 - 한진규 초대 외발초 위원장

### "자곡동이전보다 재단개혁이 먼저"

외대발전학생추진위원회(외발후)가 탄생하게 된 계기는 92년 초 총학생회 재선거를 통해 '외대시장' 서울배움터 총학생회가 들어서면서 진정으로 외대발전에 대한 열의가 갖춰지는 시기로 볼 면이 모여 결성한 조직이다.

외사수구조가 어떻게 변화해 왔다고 보는가

우선 재단이사회가 민주적으로 개편되는 것을 전제로, 공식적으로는 논의한 참구 즉 위원회 형식의 기구가 마련이 돼야 한다. 92년도 투쟁 당시 동원제단이 20만명의 자곡동 땅을 소유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알았었으며, 용인배움터로의 이전 읍모를 알게 되었다. 또한 자곡동까지 있었던 도서관 앞 동화면에 세계전 진의문에 나온 내용 그대로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외대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점, 이를 통해 9년도에는 외발후까지 생겨났었다.

그렇다면 오류점은 그 당시 투쟁에 있어 너무 '자곡동으로의 이전'에만 매달렸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투정은 자곡동으로의 이전에 때문에 풀지 않는 이승준 기자

## 모든 학교발전계획은 '중흥위'로 통한다

### 재단투자연결·민주적구성이 관건... 학내제반문제 논의기구로 격상돼야

서울배움터 32대 총학생회는 외대 중장기 발전안에 대한 요구를 하면서 가정·외대중흥위원회를 제안하였다. 외대중흥위원회의 주요활동 목표는 양배울 특성화, 서울배움터의 자곡동 이전 추진 등이다. 위원회의 구성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인으로 2인, 교수 2인, 학생 2인, 동문회 2인으로 제안되었다. 다른 문제는 제처 두고두기로의 대발전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계획하는 것인은 반드시 학생이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학내 위원회를 제안한 이유로 풀이된다.

이전 형태의 경기·발전 위원회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형태로는 △참여형 대△ 합법화 △결정 후 재단의 투자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즉, 경기·발전위원회가 재단이나 대학당국과의 외부에서만 휴대려질 때는 학내 세력들의 요구를 진정으

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 각 세력의 합의에 '민주적으로 구성된 기구가 합의를 가진 재단에 대한 외부적으로 무시되거나 않으면 제도적으로 보장이 돼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기구가 결정한 사안은 즉각 재단에 받아들여져 투자로 직결될 수 있게 하는 것 3가지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재단의 책임있는 투자계획이다. 92년 외대발전 투쟁의 성과로 남았던 외대발전 범위 대내외진증이나 혹은 당시의 합의사항이 전혀 지켜지지 못한 것에서 그 중요성이 새삼 확인된다.

이보다 한단계 나아간 형태가 '대학발전 위원회(대학발전위원회 등)'나 대발위가 이루

로 수용하는 것을 포함해서 학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에 대한 심의와 조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부제가 학내에서 문제로 떠오르면 교과과정 등에 관한 소위원회가 꾸려지거나, 충장선언에 받아들여져 투자로 직결될 수 있는 경우를 예상해 학내에서 전권을 가진 재단으로 구성되는 것 자체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학교발전을 위한 방안 들인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방안들을 정리해 명확하게 하는 정관개정 작업을 학내 구성원들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교발전위원회(외대중흥위원회 등)나 대발위가 이루

는 것 중 대부분은 유발무실하거나 형식적이다. 그것은 대발위의 중심축인 학생들이 재단 혹은 대학당국과의 합의에서 밀려 재단에게로 다시 주도권을 뺏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생 교육인권과 역량강화 대발위의 지속·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같은 외에도 같은 재단에 대

한 불만을 같이 터뜨리고 있는 것.

두 배움터가 같이 연대 투쟁한

다면 외대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크로니클 생각.

〈준〉



제4·3의 정화된 진상구멍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제주 전 지역에서 서 위를 차지했었다는데... 이제는 김 대통령이 재주도에게 보답해야 할 차례가 아닌지...

〈걸〉

○○ 어둔부 학생들의 합의장을 조선대학에서 충장보복위원회를 설치, 충장선출과 관련한 모든 과정과 학교의 힘을 하게 할 만큼 강력하고 민주적인 학생기구였으나 박철웅 충장선출위원회의 장기화로 박철웅으로 결국 무력화되고 말았다.

현재 각 학교 대발위 형태로 존재하는 것 중 대부분은 유발무실하거나 형식적이다. 그것은 대발위의 중심축인 학생들이 재단 혹은 대학당국과의 합의에서 밀려 재단에게로 다시 주도권을 뺏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생 교육인권과 역량강화 대발위의 지속·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같은 외에도 같은 재단에 대

한 불만을 같이 터뜨리고 있는 것.

두 배움터가 같이 연대 투쟁한

다면 외대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크로니클 생각.

〈준〉

같이가는 양캠

## 비둘기 칠판

### 왕 산 골

문의: 총여학생회 (4155)

〈총여학생회〉

- THE ARGUS 영자문서가 수습기사를 추가모집합니다.
- 기간은 4월 2일까지구요.
- 문의: 학생회관 2층 (4113)
- (디 이거스)

곳: 도서관 3층 서비스실

내용: 학내 홍보 문화 읽기/ 일상적 피부관리/ 화장품 사용법/ 색조 메이크업 방법알기

〈10대 일상의 반란 총여학생회〉

- 불어과 체육대회가 4월 2일 3시에 대문동장에서 열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불어과 학생회〉

· 모의 TOEIC 실시합니다.

때: 4월 29일(목) 늦은 5시 40분

곳: 5213호

접수: 4월 1일까지(11~4시), 학생회관 로비

준비물: 4,000원

· 제 18대 동아리 연합회장 선거

합동 소전 발표회-3월 31일 동연실에서 늦은 6시에 합니다.

투표일-4월 2일(목) 이른 9시부터 늦은 7시 30분까지 동연실에 서 합니다.

주의- 신분증 꼭 지참하십시오.

〈동아리연합회〉

· 순천 효천고 동문회 합니다.

때: 4월 3일(금) 늦은 5시

알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회 학생회관 2층 961-4183, 4152, 4466

왕산 학생기자회 학생회관 2층 (033)30-4112

· 미안과와 협력 MT 갑니다.

때: 4월 3~4일

곳: 경기도 임수리

화비: 2만원

잇을 수 없는 미안인의 밤 기대해도 좋습니다.

〈미안과와 학생회〉

'98 여학생 인터넷 특강합니다

강사: 주현숙

곳: 1강의- 우성복지관 4층 소극장

2~3강의- 신길동의회(경대) 4층 전산실

때: 늦은 6시

곳: 노인정(우천시 대학원 보리)

효친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효천과 동문화〉

·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가 오는 2일(목) 있습니다.

총노선 토론도 및 있게 하고 토론도 치열히 합니다.

잘생긴 사회대 남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회대 여학생회〉



